



소 현 희
(한솔동물병원 원장/수의사)

괴사성 장염에 대한 감별처치

소 화기에 병변을 유발하는 원인체는 매우 다양하다. 원인체가 소화기에 직접 작용하여 병변을 유발하기도 하고, 원인체의 감염으로 사료섭취량 등에 문제가 생겨 간접적으로 소화기에 병변이 유도되기도 한다.

이러한 소화기 질병이 발생되면 사료 내 영양분의 흡수, 이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성장율, 사료효율, 산란을 저하와 폐사가 유발되어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대부분 농장에서 계분의 상태를 관찰하여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있지만, 간혹 설사 등의 외부증상이 없이 소화기 질병을 앓기도 한다.

필드에서는 이러한 소화기 질병을 빨리 확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낮추어야 하는데, 때로는 엉뚱한 투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여러 소화기 질병 중에서 괴사성 장염에 대한 농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내 농장에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좀더 빨리 대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지난해 늦봄에 4만수 규모의 인티 사육농장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농장주와 대화하면서, 이 농장은 늘 콕시듐증이 나타나는 관계로

일정시기가 되면 콕시듐약을 꼭 투약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 파스에는 콕시듐약을 여러 번 투여했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폐사가 증가하며, 층아리가 심해진다고 하였다.

혹시 내성 문제가 아닌가 해서, 농장에서 사용해왔던 콕시듐약의 성분을 확인해본 결과, 같은 성분의 제제를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혹 콕시듐증 감염 계군의 외관이 꺼칠어 보인다고, 비타민 B그룹을 함유한 종합 비타민제를 잔뜩 주어 콕시듐증 치료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영양제 투여 여부를 확인해 보았으나 최근에 투여한 적은 없었다.

우선 증상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폐사계를 부검하였는데, 소장점막에 괴사물질이 묻쳐서 두꺼운 위막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장점막에 괴사 반점이 관찰 되었다. 위막은 부검가위로 긁어졌으며, 장점막에 출혈성 소견은 없었다. 그 외 다른 장기의 병변은 육안적 소견으로는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

장 병역과 육안적 소견을 근거로 괴사성 장염으로 가진단하고, 페니실린계 약물인 암피실린을 투약하였다. 투약 5일 후, 농장을 재차 방문한 결과, 폐사가 줄고 균일도가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실험실 의뢰 결과도 괴사성 장염으로 진단이 내려졌다.

이 농장의 경우는 닭이 움추리고 깃털을 세우고,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는 외부 증상만으로 콕시듐증이 계속되는 것으로 오인을 했던 것이다. 특정 질병이 발생한 후, 2차 적으로 다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처럼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다른 요인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농장에서도 괴사성 장염을 농장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감보로병으로 오인한 적이 있었다.

사양관리가 잘되어 년 평균 성적이 꾸준한 4만5천수 규모의 인티 사육 농장인데, 농장이 오래되다 보니 근래에는 감보로병이 어느 정도 상재하게 되었다.

중간독 플러스 균주의 감보로병 백신을 접종한 후 감보로병 피해가 거의 없지만, 간혹 백신 접종 음수량을 잘못 맞춘 동에서 감보로병 증상이 약간씩 나타나기도 했었다. 동이 여러 동일 경우, 모든 동의 백신 음수 접종시간을 2시간으로 유지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긴 하다.

그러던 중 이 농장에서 18일령에 닭이 갑작스럽게 폐사가 난다고 연락이 왔다. 농장주는 이번에도 감보로병을 의심하고 있었다. 우선 부검을 위해 폐사계를 가져왔는데, 감보로병

으로 인한 폐사계는 일반적으로 항문주위에 백색설사가 묻어 있는데 이번 폐사계의 외관은 정상적이었다.

부검 결과, 감보로병으로 진단할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소장부위에 위막 형성과 장점막의 괴사반점만이 관찰되었다.

우선은 페니실린계 약물을 처치하였는데, 큰 탈없이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체중에 닭을 출하할 수 있었다.

괴사성 장염은 클로스트리듐(*Cl. perfringens*)에 의한 세균성 질병으로, 이 균은 평상시 장내에 소수가 존재하다가, 특정 요인에 의해 증식하여 독소를 분비하여 이러한 장염을 유발한다.

이들 농장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항생제 내성, 콕시듐증, 마레병, 사료, 사료 교체, 스트레스, 불량한 사양 환경 등 여러 요인이 괴사성 장염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괴사성 장염은 늘 농장에 문제가 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급성으로 괴사성 장염이 발생하면 특별한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고 폐사가 나기 때문에 감별에 주의해야 한다.

모든 소화기 질병이 그렇듯이 괴사성 장염 또한 사료 내 영양분 흡수불량으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치를 해줘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닭 상태에 대한 결론을 미리 마음에 두지않고 닭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양계**